

2/5/23

설교 제목: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20 장 1-18 절

살아나시다(마 28:1-10; 막 16:1-8; 눅 24:1-2)

(요 20: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절관주** 마 27:60, 마 28:2, 막 15:46

(요 20: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 20: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절관주** 눅 24:12

(요 20:4)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 20:5)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절관주** 요 20:11, 요 19:40

(요 20:6)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 20:7) 또 머리를 싹뚫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싹뚫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절관주** 요 11:44

(요 20: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절관주** 요 20:4

(요 20:9)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 20: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막 16:9-11)

(요 20: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요 20: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절관주** 눅 24:4

(요 20: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절관주** 요 20:2

(요 20: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요 20: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 20: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절관주** 요 20:13

(요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 20: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절관주** 막 16:10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장사까지 다 치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삼 일만에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들려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며 수종을 들었던 여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헌신적으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요 20: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하루의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 날 해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후 첫날은 토요일 일몰 후부터 일요일 일몰 때까지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갔습니다.

안식 후 첫 날 새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오후부터 안식일까지는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후 첫날을 기다렸다가 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뵈고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 날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인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시작으로서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여인네들과 함께 준비해 놓은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막 16: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 16: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막 16: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앞에 놓여진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무덤 앞에 놓여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역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요 20: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 역시 놀라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 20: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요 20:4)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 20:5)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 20:6)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 20:7) 또 머리를 싣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싣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 20: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 20:9)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 20: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이 먼저 도착했으나 무덤 입구에 놓인 세마포 수의를 보고는 더 이상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요한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베드로가 도착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성격대로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이 보았던 세마포 수의와 더 안쪽에 예수님의 머리를 싹던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고 말합니니다.

이때에 요한이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사실이였습니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는 9 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은 시편 16 편을 인용한 것입니니다.

시편 16 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고백으로 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시 16:9)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시 16: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 16: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의 군주이자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 지방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피난하여 16 개월 동안 숨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증오해 블레셋 편이 되어 그 전쟁을 치렀더라면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니다.

사실 이 사건 말고도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도 깊은 절망과 슬픔을 안은채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애통해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통곡하며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요 20: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요 20: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요 20: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연고를 알고 싶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느냐?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시신을 모셔 가겠다”고 합니다.

(요 20: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요 20: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생전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천사가 물었던 질문을 또 다시 반복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을 수도 있었으련만 그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신에 계속 시신만을 찾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장체를 드러내십니다.

(요 20: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요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생전에 자신을 부르시던 그 음성과 그 억양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시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막달라 마리아의 가려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묶여 있던, 무덤 속에 갇혀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을 깨워 놓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감동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본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반가움에 달려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며 제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붙들려는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하셨을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생전의 삶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오해할까봐서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생전의 랍비로서가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부르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친구 사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혈육 관계로 발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한 가족,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다음 이어지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 집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구원 역사의 완성을 뜻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요 20: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부활의 사실을 전해 주었고, 부활하신 주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행 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고전 15:20)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1)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전 15:22)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